

# 하리사리쇼들



창간 1997년 3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청 기획관

발행처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전화 033-560-2224

통권 제337호 2025년 3월 1일



정선동강할미꽃 & 고랭이

### 제3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가결 -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지난달 28일 제305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19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정선군 집행부 각 부서와 읍면,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금년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102억 4천만 원 규모의 민생회

복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논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정선군 전 군민이며, 1인당 30만원씩 '정선아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는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또한, 카드 사용처는 지역 화폐인 외와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는 사용이 제외된다. 가맹점은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10대 최종수 이사장 취임

- 정선아리랑 문화·예술·관광 핵심거점 도약 -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최종수)은 지난달 13일 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임직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수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종수 이사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정선군 건설과장, 시설국장 등을 역임하고 9대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정선아리랑의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강화와 지역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정선아리랑제 50주년을 맞은 올해는 정선아리랑 in Seoul 행사, K-컬

처 글로벌 프로젝트, 뗏목 국가 유산 등재를 위한 기획 전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수 이사장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아리랑의 무형유산 가치 확산과 생활문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핵심 거점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지난 12일 아리랑센터에서 정선신협(이사장 김동기)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정선 향골 솜바우길, 겨울 힐링 트레킹 코스로 각광

- 이끼와 원시림으로 이루어진 환상적인 비경 -



겨울철 눈꽃 만개한 정선 향골 솜바우길이 힐링 트레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향골 솜바우길’은 정선군 북평면에 위치한 총 7.7km 길이의 트레킹 코스로 이끼와 원시림이 어우러진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트레킹 명소로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향골 솜바우길은 산림청이 뽑은 명품 숲길 50선에 뽑힐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특히 겨울철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과 얼음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설경을 연출한다.

솜바우길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솜바우길의 마스코트인 ‘익희’와 ‘바우’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다. ‘익희’와 ‘바우’는 솜바우길의 정선 지역의 아름다운 바위와 울창한 이끼를 형상화한 캐릭터이다.

이와 함께 북평면에 위치한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이용해 눈 덮인 산 정상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백두대간의 장엄한 설경이 펼쳐져 색다른 겨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향골 솜바우길이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힐링 트레킹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눈 덮인 솜바우길과 가리왕산에서 차갑고 맑은 공기를 가슴에 채우며 마음까지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 성인문해교육 '청춘학당' 졸업식 개최

- 배움을 향한 끝없는 열정 -



정선군 가족센터에서는 지난달 17일 ‘청춘학당 제2회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은 강원도교육감 지정 및 승인 사업인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41명의 성인학습자 중 32명이 교육을 이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 사북공공도서관, 아우라지작은도서관, 무지개작은도서관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졸업생의 평균 연령은 75세이고, 최고령 졸업생은 만 85세로, 배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이 돋보였다.

현재 정선군은 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 기초문해교육, 디지털문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400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한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키오스크 교육 등을 강화하고, 학습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배움에 나이가 없음을 몸소 증명해 주신 학습자 여러분의 열정과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축하를 드리며, 배움으로 인생의 새봄을 맞이하신 졸업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 시기를 바란다.

## 건강 증진 금연클리닉 운영

- 흡연을 감소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

기관명	일정	시간
정선군보건소	매주 월~금요일	09:00~18:00
고한사복지소	매주 월,화,목,금요일	
남면지소	첫째, 셋째주 수요일	10:00~16:30
신동읍지소	둘째, 넷째주 수요일	
여량면지소	첫째, 셋째주 화요일	13:00~17:00
화암면지소	첫째, 셋째주 목요일	
북평면지소	둘째, 넷째주 화요일	
임계면지소	둘째, 넷째주 목요일	

보건소에서는 군민 건강 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을 추진, 지난해 400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150여 명이 금연에 성공했으며, 금연 구역 지정 확대 조례를 개정해 금연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1,239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정선군은 금연시도율이 53.6%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현재흡연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한다.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 이벤트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420명의 흡연자를 등록관리하며, 비대면 금

연클리닉과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2,35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금연지도원 4명을 채용해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등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조성에 힘을 계획이다.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꿈나무 흡연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건강자람학교와 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걷기 애플리케이션 워크온과 연계한 금연 홍보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 제23회 풍년기원제 개최

- 풍년과 무사안녕 기원 -



지난 12일 정선군 농업인회관 일원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회장 김대현) 주관으로 '제23회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인들의 풍년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정선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풍년기원제는 매년 정선군의 농업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년과 안전한 농사를 기원하는 행사로, 올해 행사는 농업경영 환경의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를 포함해 농업인들의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장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및 농업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 의식과 내외빈 소개, 인사말씀 등이 진행됐다. 오후 1시부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놀이와 함께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가자들이 친목을 다지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대현 (사)한국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정선군 농업 발전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며 "올사년 풍년 농사와 정선군의 농업 발전을 통해 농업인 모두가 행복한 정선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선군 각종 단체, 회장 이취임식 개최

- 2025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도약하다 -



2025년 정선군에서는 각종 단체의 이·취임식이 개최되면서 정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정선군여성회관에서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제19대 김미숙 회장과 제20대 이명희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19대 회장을 맡았던 김미숙 전 회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제19대 회장으로 활동하며 여성 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명희 회장은 2000년 생활개선회에 가입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개선회 여량면회장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활개선회 정선군연합회 수석부회장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생활개선회 정선군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명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안으로는 회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밖으로는 여성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일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선군협의회 신임 회장인 최미숙 회장의 취임식이 개최됐다.

최 회장은 정선 화암면 출신으로 2010년 대한적십자 정선군협의회에 입회한 뒤 정선읍 봉사회 회장을 거쳐 올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정선 출신으로 북평파크골프협회 회장을 역임한 홍상표 회장이 정선군파크골프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협회의 소통과 단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회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한국쌀전업농 정선군연합회 쌀 250포 기탁

- 복지 사각지대 이웃 지원 -



(사)한국쌀전업농 정선군연합회(회장 도혁석)는 지난달 6일 정선군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 250포를 기부했다.

기부된 쌀은 지역 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과 소규모 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는 데에도 일부 활용할 계획이다.

도혁석 (사)한국쌀전업농 정선군연합회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확산되어 따뜻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변화(變化)하는 삶에 적응

서덕용 아라리명예기자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종(種)의 기원(起源)'을 쓴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한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이것이 바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자연법칙(自然法則)이다.

빌 게이츠도 같은 말을 한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비결이다." change(변화)의 g를 c로 바꾸면 chance(기회)가 되는 것처럼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변화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모르는 체하는 사람과 순간순간 변화에 깨어 있으면서 당당히 맞서는 사람과의 차이는 각도계의 눈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조지 버나드 쇼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유명한 묘비명(墓碑銘)처럼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기회는 벌써 지나간 과거가 되는 요즘이다.

힘차게 흐르던 물이 구덩이를 만나면 멈추게 된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소용이 없다. 상처만 남을 뿐이다. 물이 가득 채워져 넘쳐흐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람의 그릇은 이처럼 구덩이에 빠진 고난(苦難)과 시련(試鍊)과 역경(逆境)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이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신을 할키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는데, 어떤 이는 물이 구덩이를 채워 넘쳐흐를 때까지 마음을 다잡아 재기를 노려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기 전보다 잘나가는 사람이 있다.

세한도(歲寒圖)를 그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병조참판까지 잘나가다 대역죄(大逆罪)



모함으로 제주도로 귀양살이를 떠나게 된다. 그는 삶의 구덩이에 빠진 걸 한탄하지 않고 그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다. 그림을 그리고 붓글씨를 쓰는 일이었다. 먹을 가는 벼루만 해도 10개가 밀창이 나고 붓은 천 자루가 달아서 몽개졌다.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게 남아 있음을 안다."라는 공자의 명언을 주제로 삼아 겨울 추위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청청하게 서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낸 것이다.

아무리 우리 처지가 어렵다 한들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세한도(歲寒圖)'를 그릴 당시에 비할 만하겠는가. '세한도'는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된 지 5년째 되던 1844년(59세)에 그린 작품이다. 당시의 제주도는 지금 같은 휴양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형벌의 땅이었다. 머나먼 절해고도(絶海孤島)에 55세 나이로 갇히게 됐으니 정치생명이 완전히 끝났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기를 4년이 지났다. 많은 사람이 그를 외면했다. 그런데 제자였던 이상적(李尙迪)의 의

리는 변함이 없었다. 역관이었던 이상적은 스승의 초창기 유배생활부터 필요하다는 서책을 중국까지 가서 구해서 보내줬다. 그 책을 받아든 스승 김정희는 제자의 행동에 감동했고 그림으로 보답했다. 이렇게 명작이 탄생한 순간이다.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 정약용(丁若鏞)은 18년이라는 길고 긴 귀양살이를 전남 강진에서 보내게 된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역경과 시련과 절망과 분노와 좌절을 극복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한다.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등 대작과 수많은 저서를 남겨 후대에 삶의 지표(指표)를 남긴다. 그에게 구덩이는 구덩이가 아니었다. 시련 속에 정약용의 진면목(眞面目)이 드러난 것이다.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결국 죽고 만다. 인간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늘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니체가 설파하지 않았나, 매일 똑같은 날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작은 변화(變化)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작은 변화(變化)가 모여 더 큰 변화(變化)를 일으키는 것이다.

눈이 녹아 비가 되고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 동면하던 개구리가 놀라 잠을 깬다는 경칩이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슬슬 녹아 없어짐을 이르는 뜻으로 계절의 변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다. 이 무렵에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목이 돋아난다. 이제 봄이다. 봄날에 적응하여 농부가 밭을 일구어 일 년 농사 준비하듯, 정치권도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혹독한 겨울을 준비할 것 아닌가!

##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장영기 아라리명예기자

며칠 전에 책 한 권을 읽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에필로그에 두 가지 질문을 한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價値)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후세에 기록되고 싶나?'이다. 내게 하나 더 추가하려면 '잘나에 대답할 수 있는 소원의 기도가 있는가?'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은 누구나 편도체의 작동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호, 불호의 감정이 있다.

앞의 두 가지는 오래 생각해야 하고 뒤에 추가한 한 가지 질문은 항상 마음에 담고 있던 소원의 기도니 즉시 답할 수 있는 것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늘의 신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부(富)도 귀(貴)도 아닌 지혜를 구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타나고 또 그 가치에 따라 결과의 열매도 맺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젊은 날 그 사람의 꿈, 삶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결과의 열매가 맺어져 그 사람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인생은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만이 자신의 운전대를 잡고 달려가기 때문이다.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후세에 남겨지고 기록되고 싶나? 세월 따라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살아온 생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지면 조금만 마음이 들게 된다. 그

러나 과거 살아온 삶의 흔적, 발자국은 이미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변하기 어려우니 후회되는 일들은 뒤로하고 남은 삶의 시간을 조금 더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며 좋은 추억을 남기며 가야 하지 않을까?

때론 인생의 삶을 추구에 비겨 말하기도 한다. 전반전의 삶은 성장, 교육, 결혼, 취직 등으로 숨 가쁘게 살아왔지만 하프타임을 넘어 인생 후반전은 좀 더 생각하고 느린 의미를 부여하는 슬로우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다.

사람은 죽을 때에 진심을 말한다고 하지 않는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문학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지명이 생각난다. 흔히 인생을 4계절로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당신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봄에 돌아온 푸른 잎사귀가 여름에는 녹색의 장원을 이루고 가을이 되면 화려한 단풍으로 절정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곧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가 하면 머지않아 하얀 백설이 온 대지를 덮는 겨울이 찾아온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을 때, 많은 인파가 그 순간의 모습을 보려고 몰려들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 박물관에 장사 되는 것을 각국 외교사절이 다섯 시간씩이나 기다려 그 순간을 보았다고 한다.

어제 가수 송대관 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대중들에게 '짱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라는 노래로 대중들

에게 희망을 각인시켰고, 인도의 성녀 테레사 수녀는 봉사를 남기고 갔다. 앤드루 카네기는 전 세계 2509개의 도서관을 세웠고, 법정 스님은 『무소유』 작은 책으로 중생을 일깨웠다. 그 사람이 남겨놓은 업적(業績)은 곧 일(work)이며 흔적이다. 그리고 남기고 간 여운이며 향기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무엇인가 남기고 가자. '네 인생의 푸른 동산에 성취의 기념비를 세워라. 이것이 삶의 의미(意味)이다'라고 안병욱 선생은 말했다.

금 1온스와 납 1온스의 무게는 같지만 본질적인 가치가 다르듯 자녀에게 책 한 권 읽어주는 시간과 친구와 한 시간 포커 치는 시간도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 선택의 본질적 가치와 유산을 어디에 두는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평범한 자연인이지만 '나는 오늘 어느 어르신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참 훌륭한 삶을 사셨더라.' 이런 평판을 남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생 마감할 수 있다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지 않겠나?



# 수의

시인 전운호

어머니 베짜는 소리에 부엉이 울고  
 철커덕철커덕 겨울바람 지나가네  
 낮에는 두부 만드느라 멧돌 돌리고  
 아궁이 불 앞에서 꾸벅꾸벅 졸더니  
 호롱불 아래 베들 안고  
 동네에서 가장 좋은 삼으로  
 읍내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수의를 지으시네  
 멀쩡히 산 사람 수의는 그만두고  
 우리 어서 자요  
 달빛같은 어머니 흰머리  
 북을 잡고 밤을 새네  
 수의를 미리 만들어놔야 장수한다고  
 꿰기풀로 옷을 짜던 공주처럼  
 내일이면 처형될 동화처럼  
 마법에 걸려 나는 먼저 잠들고  
 어머니 베 짜는 소리에 부엉이 우네  
 철커덕철커덕 푸른 달이 물드네

예로부터 정선은 질 좋은 대마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수확 철이 되면 전국에서 상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거래량이 엄청나서 농부들의 주 수입원이었다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집집마다 베 짜는 베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철커덕 철커덕 베 짜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지요. 산 사람 수의를 미리 짜 놓으면 좋다고 남편의 수의를 짜던 아낙들이 생각납니다. 과연 그 정성 어린 수의를 입을 자격이 있는 남편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 어른거리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 Book Cafe

#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지은이 우종영 엮음 한성수 발행처 메이븐 서평 지근배 아우라지독서회



### 500년 된 뽕나무를 수술하는 나무 의사

정선읍에는 조선시대 제주 고씨가 중앙 관직을 사직하고 낙향해서 심었다는 500년이 넘는 뽕나무가 있다. 높이가 25m인 뽕나무 옆에는 '상유재'라는 고즈넉한 고택 찾지도 있다. 얼마 전 요란한 비바람이 불더니 '우두둑'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어떡해. 가지가 부러졌네. 아버님이 아셨으면 난리가 났을텐데." 찻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자 며느리의 걱정이다.

출근길 팔순을 넘긴 노인이 쪼그려 앉아 풀을 뽑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여린 잡초가 나무의 삶을 방해하진 않겠지만 노인은 하루가 멀다고 풀을 뽑았다. 나무는 여전히 이곳에 있고 낫빳했던 노인은 먼 여행을 떠났다.

500년을 버텼으니 나무는 힘들다. 군데군데 거뭇하게 수술한 자국이 있고 약한 가지는 지주대로 바꿨다. 마을을 지키는 나무가 부러졌으니 흉이 될세라 부라부라 수술이 시작되었다. 한나절 동안 자르고 파고 소독하고 매웠다. 수고한 사람들과 차를 나누며 명함을 주고받으니 직업이 나무 의사다. 짧은 시간의 대화지만 그들은 자부심으로 행복해한다. "나무도 사람 못지않은 정성이 필요해요. 아이 다루듯 부모님 모시듯 합니다" 나무와 함께 사는 나무 의사? 궁금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나무 의사이자 작가인 우종영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를 읽었다. 주변의 나무들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 자리 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나무의 위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나무에서 배웠다"라고 말하는 30년 경력의 나무 의사. 어려서 천문학자를 꿈꿨지만, 색약 판정을 받고 방향하던 끝에 우연히 원예 농장에서 일하며 나무를 알았다. 산꼭대기 바위틈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소나무를 보고 나무처럼 살 것이라 다짐하며 나무 병원 '푸른공간'을 설립했다. 지금까지 공해로 찌든 도시 나무, 몇백 년 살아온 고목 등 수천 그루의 나무를 치료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를 비롯해 모두 11권의 책을 썼으니 작가의 나무 사랑과 부지런함이 보인다.

"생존을 위한 버팀은 한번 싹을 틔운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나무들의 공통된 숙명이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피할 길이 없고, 사

람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의 위협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어떤 재난이 와도 도망칠 재간이 없기에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자구책을 최대한 동원해 그 시간들을 버텨 내는 것뿐이다. (P56)"

작가가 느끼는 나무의 운명은 어쩔 수 없는 슬픈 울음이 아니라 몇 번이고 울다 깨우친 질기고도 장엄한 다짐이다. 나무를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로 존경하며 깨달음의 대상으로 아는 이유다.

자신의 그늘 밑에선 자식들이 자랄 수 없기에 씨앗을 온갖 방법으로 최대한 멀리 보내려는 나무의 지혜.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흩날려 되어 강바람 타고 훨훨 네 곁으로 간다(민들레 흩날려 되어)"라는 노래가 생각나고 뱅글뱅글 돌며 떨어지는 단풍나무 씨앗의 춤이 그려진다. 자식 주위를 맴돌고 싶은 사람 부모, 멀리 떠나보내려는 나무 부모. 헬리콥터 부모가 자녀를 망친다는 우리 세상과는 사뭇 다른 나무의 결정이다.

씨앗에는 씨앗으로 존재하려는 현재 지향성과 곱질을 벗고 나무로 자라려는 미래의 용기가 동시에 존재한다.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힘과 언제든지 싹을 틔우겠다는 상반된 힘이 씨앗 안에서 갈등하고 타협한다. 너무 오래 기다리며 망설인 씨앗은 결국엔 나무가 되지 못한다. 자작나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발아율이 고작 10퍼센트 남짓인 이유다. 날아오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았든 발아하겠다는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라도 응원받아 마땅하다.

작가는 '나무의 유형기, 나무 간격과 공존, 우듬지, 광합성과 광보상점' 같은 나무 관련 지식을 사람 인생에 비유해 차근차근 설명한다. 씨앗이 땅에 자리 잡고 새싹이 돋고 힘겨운 경쟁과 비바람을 견디며 성장하는 생태를 소개하며 뜰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게 정성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 또한 운명처럼 자리 잡은 한곳에서 살아가는 나무를 보며 나와 이웃을 돌아보라 권한다. 뽕나무, 개박달나무, 탕자나무를 어떤 곳에 심어야 하는지 재미있게 소개한 부분은 색다른 보너스.

작가는 글이 너무 평범하다고 겸손해한다. 책을 읽다가 핸드폰을 잠시 집에 두고 산에 올라 나무를 만지고 등 비비고 냄새 맡고 싶은 설렘을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설득이 아니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다. 온몸으로 눈을 이고 사는 겨울나무. 수동적인 운명이라 말하지 않겠다. 피하지 못하고 감내하는 처지를 극복이요 의젓함이라 말한다. 일상의 오만 가지 걱정과 어리광을 나무에 고백하고 싶다. 나무의 삶을 소개하며 우리 삶을 위로하는 작가의 마음에 고마움을 전한다.

### 알쓸세잡

11

## 법인이 기숙사용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의 세금 문제

김관중 현암세무회계사무소

법인이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직주근접(職住近接)이 힘든 장거리 통근 직원을 위해 원룸, 오피스텔 등을 법인명으로 임차해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정도 실비만 직원의 자부담으로 하거나, 아예 주택을 기숙사 용도로 매입해 무상으로 제공한다.

첫째, 법인이 직원 숙소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다. 계약 당시 건물주가 주택임대업은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지만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을 못 박는 경우가 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임차인의 계산서 발행 요구를 묵과할 수는 없다. 여하튼 임차한 법인으로서의 계산서를 받아 경비 처리하거나, 임대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입금내역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직원이 받는 무상 사택이익은 총급여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을 직원 명으로 체결한다든지, 직원이 지불할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임차료를 함께 공동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세법상 혜택은 없다.

둘째,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여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민해 봐야 한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고시원 건물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문제는 주택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민주택(85㎡=25.7평)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나 다세대,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개인 소비자에게 주택을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식 요구하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주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주거 전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직원의 기

숙사 용도로 매수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가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인데 이를 보조하기 위해 매입한 물적 설비가 비록 주거용 주택일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과세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임대업(면세사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도 않았고, 실제 면세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이 매년 3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할 때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숙사 용도로 구입한 건물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제공받은 사택 이익을 살펴보자.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공받은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본다. 하지만, 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 꽃피는 계절, 정선의 봄날

이학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 물철쭉꽃 핀 전경

## 봄이 오는 소리

정선에는 눈 녹은 물줄기가 흐르면서 봄이 시작됩니다. 어른들은 눈 녹은 물을 ‘눈물’이라 말했지요. 한자로는 눈 설(雪) 자에 물 수(水) 자를 써서 설수(雪水)라 합니다. 찬 기운이 그대로인 도랑이나 개울에 가면 얼음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겨울에 쫄쫄 얼었던 얼음 밑을 뚫고 산 위에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쿨~쿨~. 정말 물소리가 기운잡니다. 봄마다 눈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따뜻한 기운이 몸에서 솟아나곤 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온다는 생각에 얼음 속으로 세차게 흐르는 눈물을 보는 재미도 좋습니다.

사실 일부러 눈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러 개울로 가지는 않았지요. 눈물이 튀어 얼음을 머금은 버들개지를 보러 가지요. 버들개지는 눈 속에서도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버드나무껍질에는 파랗파랗 살이 퐁퐁 오르지요. 버들개지는 어느새 회색 또는 노랑고 붉은 꽃잎을 드러냅니다. 버들개지마다 색깔이 다르고 피어오르는 꽃잎도 복술복술 다른 모양을 띠지요. 그렇게 정선의 봄은 얼음 속 흐르는 눈물에서 시작하고, 봄을 알리는 징표는 얼음을 뚫고 피는 버들개지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버들개지를 보며 말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고요. 세차게 흐르는 눈물이 밖으로 튀어 버들개지는 춤추듯 흔들립니다. 마치 나 여기 있어 하고 자신을 알리는 듯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버들개지가 피기 시작하면 어느덧 개구리가 동면(冬眠)에서 깨어나온다는 경칩(驚蟄)이 됩니다. 경칩은 봄이 왔음을 땅속에 숨었던 벌레들이 알고 놀라 밖으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정선에서는 우수 경칩에 물이 풀리면 갯떼기[첫떼]를 띄워 보냈습니다. 눈물이 흘러 뗏목을 띄울 정도로 물이 불어나기 때문이지요. 이때쯤 되면, 그 유명한 정선의 뗏목아리랑 가락이 조양강과 동강을 타고 흐릅니다.

“우리 서방님은 때를 타고 가셨는데/ 황새여울 뉘꼬까리 무사히 지나가셨나/ 황새여울 뉘꼬까리 다 지났으니/ 만지산 전산옥이야 술상 차려 놓게”

정선 시인 전윤호는 서사시 『정선 뗏목 아리랑』을 썼습니다. 작품 끝에 “하얀 강에 눈 녹으면 봄이 찾아오고요/ 검은 산에 해당화 피면 당신이 찾아오지요.”라 했습니다. 이처럼 정선 사람들에게 눈물[雪水]은 특별합니다. 정선의 봄은 눈물이 흐르고 버들개지 피면서 옵니다.

## 참꽃에 얽힌 사연들

정선의 산에는 진달래보다 앞서 피는 동백꽃[동박꽃, 생강나무 꽃]이 있습니다. 노랗게 속잎을 드러내며 아직 덜

녹은 눈을 비웃듯 봄이 왔음을 자랑합니다. 높은 산에야 당연히 잔설(殘雪)이 골골마다 쌓였습니다. 하기가 오월이 지나야 정선의 높은 산에는 눈이 다 녹으니까요. 동백꽃 피는 삼월에는 눈이 골골마다 얼음 위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눈 밑에 얼음은 발로 밟으면 아직도 단단하여 잘 깨지지도 않습니다.



▲ 진달래 꽃

이런 봄 참꽃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마다 병에 꽂아둔 참꽃도 활짝 피어 방안을 밝게 수놓습니다. 참꽃은 진달래를 일컫던 말입니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철쭉은 먹을 수 없어 개꽃이라 했습니다. 참꽃을 병에 꽂아 피웠던 사연은 봄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비롯했을 겁니다. 병에 꽂았던 참꽃이 시들고, 동백꽃이 이산 저산 노랗게 물들었다가 질 때쯤이면 어느덧 삼월 말이 됩니다. 이젠 햇빛이 꽤 따사롭게 봉당에 앉은 할아버지 얼굴을 덤칩니다. 긴 담뱃대를 든 할아버지는 봄별을 좋아했지요. 이때면 온 산은 참꽃으로 알록달록 물들입니다. 꽃피지 않은 산이 없을 정도로 산마다 참꽃이 분홍색으로 산을 수놓습니다. 평상시에는 참꽃나무가 이렇게 산에 많은 줄 몰랐습니다. 참꽃나무가 어디 숨어있다가 봄이 되면 나타나는 듯했습니다. 특히 뺨뺨[비탈]에는 더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진한 분홍색으로 말입니다. 아이들은 신났습니다. 너도나도 때로 몰려 산으로 가서 꽃잎을 따먹고, 예쁜 꽃을 꺾어 오지요. 한두 움큼씩 꺾은 참꽃을 가져다가 우물가에 꽂아둡니다.

“참꽃에 문둥이가 있다. 아이들이 오면 잡아서 간을 빼먹는다.”

매년 참꽃이 필 때마다 어른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참꽃을 꺾을 때마다 긴장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이서 얼른 꽃을 꺾어서 ‘걸음아나 살려라.’ 하면서 집으로 뛰어옵니다. 집에 당도하면 안도의 숨을 내쉬지요. 아마도 어른들이 더 예쁜 꽃을 꺾으려다가

행여 뺨뺨에 떨어져 다칠까 봐 한 말일 겁니다.

진달래꽃으로는 꽃싸움도 했지요. 꽃 수술을 떼어서 누가 더 세냐며 잡아당겼습니다. 왜 이기는 사람만 계속 이기던지요. 꽃 수술도 센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지요.

집에 가져온 참꽃은 병에 꽂아두고 보는 관상용으로도 쓰이지만, 어머니가 참쌀가루로 반죽하여 동그란 화전(花煎, 꽃전)을 해 줍니다. 얼마나 맛있었던지요. 색깔도 예뻐지만, 입안 가득 꽃잎의 향이 시큼하게 다가오며 참쌀떡의 쫄깃한 식감이 더해 정말 맛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화전놀이라고 들어보았을 겁니다. 진달래 활짝 피는 계절이 오면 여성들이 산 계곡으로 놀러 가서 화전을 해서 먹고 노래하고 춤추며 꽃놀이를 했습니다. 경치 좋고 놀기 좋은 장소에 터를 잡고 종일 놀았습니다. 음식을 비롯해 술도 가져가고요. 장구도 가져가서 치면서 겨우내 쌓였던 스트레스를 모두 풀고 집으로 왔답니다. 요즘은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산불 날까 봐 할 수 없기도 하지만, 놀이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화전놀이는 여성들의 고유한 놀이 가운데 하나였지요.

## 철쭉꽃 닮은 사람들

봄 되면 정말 밭, 들, 산으로 예쁜 꽃들 천지가 되지요. 할미꽃, 오랑캐꽃, 꽃따지, 망초, 냉이꽃 등등 다 언급조차 하기 힘들지요. 그중에 정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꽃은 진달래 지면서 피는 철쭉꽃입니다. 철쭉꽃은 정선에서 먹을 수 없다고 개꽃이라고도 했지요.

진달래 지고 난 정선의 산은 온통 철쭉으로 수놓습니다. 어디 산뿐인가요. 개울 옆과 그리고 강 옆 언저리마다 물길 따라 길게 꽃으로 장식하는 물철쭉은 정말 일품입니다. 진달래처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는 어디 숨어있다가 봄만 되면 화사한 얼굴을 내밉니다.

철쭉꽃은 그 화려함으로 인해 『삼국유사』 수로부인 조에도 나옵니다. 신라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할 때 그의 부인인 수로부인이 같이 갑니다. 바닷가를 지나고 있을 때 높은 벼랑에 핀 철쭉꽃을 보고 수로부인은 갖고 싶었지요. 누가 그 꽃을 꺾어 줄 것을 원했으나 너무 높고 위험해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암소를 끌고 가던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그 꽃을 꺾어 바치면서 4구체 향가 <헌화가(獻花歌)>를 불렀습니다.

“붉은 바위 끝에 암소 잡은 손을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이처럼 여인의 마음을 녹게 했던 꽃이 철쭉입니다. 정선의 사월은 철쭉의 향연이 베풀어집니다. 가까이 가보면 그 색깔이 정말 다양합니다. 붉은색, 보라색, 분홍색, 하얀색 등으로 철쭉꽃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수로부인처럼 누구든 철쭉꽃의 아름다움에 마음 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선의 봄날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합니다. 아마도 정선 사람들의 예쁜 마음은 화사한 봄날의 꽃을 닮지 않았을까요.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문래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의 맛

15

# 쇠머리 찰떡

최미옥 정선 맛 연구회 회원



쇠머리 찰떡은 콩, 밤, 대추, 호박고지 등을 찹쌀가루에 섞어 찐 떡으로, 떡이 약간 굳었을 때 썰면 쇠머리편육과 비슷하다 하여 쇠머리 찰떡이라 하였다. 정선에서는 ‘찰몽생이’, 시골 어르신들은 ‘찰몽세이’라고도 부르는데 가을에 콩, 서리태, 강낭콩, 대추, 밤, 늙은 호박 등을 수확해 두었다가 설날이나 귀한 손님 잔치날에만 해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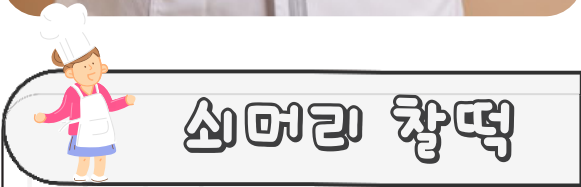
농가에서는 벼·콩·팥 수확하며 늙은 호박

따 들어 별 좋은 날 손질해 말리고 밭작물 거름이 끝나치면서 거름이 한 콩에 미운 것 골라내고 봄에 장 담을 메주 만들면서 겨울이 깊어진다. 농촌 주부들은 겨울에도 바쁘다.

쇠머리 찰떡은 재료 준비와 떡 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농사가 끝난 겨울에 주로 해 먹었다.

콩은 여러 가지 떡의 재료로 쓰이는데 콩을 볶아 가루를 내서 옥수수 인절미, 콩고물 인절미도 하고, 볶은 콩가루와 꿀을 반죽해서 다식틀에 모양을 잡아 볶은 콩가루 다식도 하였다. 볶은 콩에 조청 버무리 콩강정도 만들어 먹었는데 시골에서는 콩 반데기라고도 불렀다.

또한 콩은 색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 노란 콩은 매주, 두부, 볶은 콩고물, 가수기, 콩국수, 콩갱이 등을 만들고 서리태콩은 컵질이 검은색이며 단맛이 있고 맛있어서 떡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흰 쌀 반죽에 불린 콩 넣어 송편을 찌서 먹고, 멥쌀로 만든 콩 백설기, 찹쌀로 만든 콩찰떡 등을 만들었다. 요즘에도 영양떡이라 하여 많이 해 먹는 쇠머리 찰떡은 영양가 높은 재료들이 듬뿍 들어간 영양 만점의 쫄쫄한 맛있는 전통떡이다.



※ 위의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 맛 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재료 :** 습식 방앗간에서 뿜은 찹쌀가루, 고운 소금, 설탕, 물  
씻어 불려 건진 서리태콩, 씻어 삶아 건진 강낭콩, 건 대추, 깎 밤

1



찰쌀가루에 고운 소금 고루 섞고 물 주고 손힘을 빼고 고루 섞어 채에 한 번 내린다.

2



콩은 씻어 6시간 불려 건져 고운 소금 작은 반 티스푼, 설탕 2큰술 넣어 고루 섞는다.

3



강낭콩 씻어 냄비에 물을 넣어 삶은 후 건져 고운 소금1꼬집, 설탕 1큰술 섞어 둔다.

4



대추는 씻어 물기를 닦고 씨 발리고 크기 따라 4~6 등분 한다.

5



말린 호박은 물에 씻어 건져 비닐 봉지에 30분 담아 두었다가 대추 크기로 자르고 설탕1큰술 섞어 둔다.

6



깎 밤은 크기에 따라 2~4등분 설탕 1큰술 섞어 둔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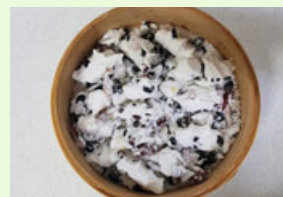
나무 덩섬 찜기는 물에 20분 담갔다 건져 물을 빼고 썬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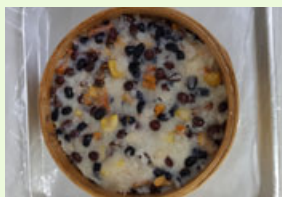
덩섬에 설탕1큰술과 콩 반 컵을 뿌려 주고, 준비된 쌀가루에 콩, 밤, 대추, 강낭콩, 설탕을 넣고 섞어준다.

9



섞은 것을 살짝 안 깨질 정도로 주먹 쥐어 열기설기하게 얹혀 찜다.

10



공기를 살짝 바른 쟁반에 조심히 떡을 쏘아 모양을 잡아 비닐로 싸서 2시간 식힌 후 썰어 접시에 담는다.

힘내라 정선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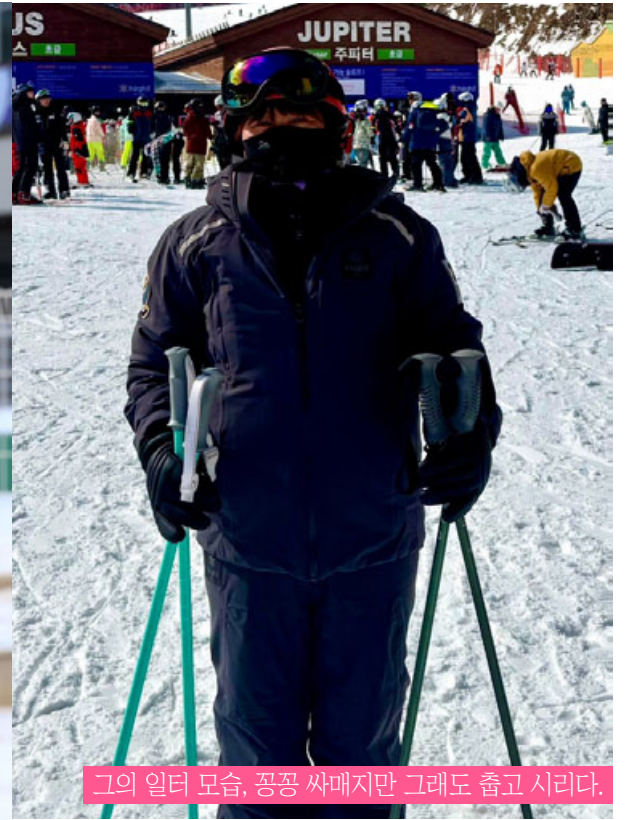
02

## 화재의 아픔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네팔에서 시집온 신아영(비말라 타파) 씨 -

글·사진 권혜경

2025년 1월 정선군 내의 다문화가족 수는 16개국에서 온 250여 가구로 다문화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정선으로 이주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찾아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 보며 그들의 용기와 도전적인 삶을 공유해 본다.



그의 일터 모습, 퐁퐁 싸매지만 그래도 춥고 시리다.

연일 한파주의보가 문자로 발령되던 지난 2월 10일 하이원 스키장에서 일반 정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네팔에서 온 신아영(38세) 씨를 만났다. 수줍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인 그는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포카라 시내에서 나고 자랐다. 네팔의 부족 중에 하나인 마가르족 출신으로 3남매 중의 막내였다. 어려서부터 미용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결혼 전까지 동네의 치과에서 간호사 일을 하며 지냈다.

그는 이모의 주선으로 2010년 5월, 남편 사는 노총각 신관선(55세) 씨와 결혼하게 되어 결혼이민자가 되어 정선에 왔다. 하지만 꿈과 설렘을 가지고 시작한 그의 결혼 생활은 힘겨웠다. 대소변을 거르지 못하는 치매 시아버지와 뼈대한 산골 살림, 무엇보다도 포카라 시내에서 살던 도시 여자인 그가 정선 산골에 적응하기엔 너무 외로웠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힘들었지만 주변엔 산과 밭뿐이었어요. 다행히 가까이 살던 손위 동서가 저를 많이 챙겨줘서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의 손위 동서도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결혼이민자였다.

그렇게 힘든 결혼 생활에 적응하며 아들 신창윤(15세) 군이 태어나고 한국말을 서툰게 할 무렵 시아버지가 치매 영향으로 한밤중 방안에 장작불을 피워 삼시간에 살던 집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영 씨는 아들을 안고 뛰쳐나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정선

으로 이주한 지 3년 만인 2013년 9월의 일이었다. 집이 없어진 그의 가족은 마을 회관에서 임시로 생활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남편과 아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

“화재가 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알고 지내던 결혼이민자 언니들도 저를 위로하고 도와줬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며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 겨우 남아 있는 휴대폰 안에 가족사진, 집안의 화재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살아온 게 기적이라고 했다.

화재가 나고 그는 남편을 도와 돈을 벌어야 했다. 여러 가지 알바를 하다 정선군 가족센터에서 제과제빵과 통번역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우리주민(주)에 입사했다.

그는 요즘 하이원 스키장에서 일반 정비 업무를

맡고 있다. 매일 스키장 리프트를 타고 오르내리며 일을 한다. 때문에 겨우내 그의 불은 빨갛게 얼어 있다. 그는 가끔 네팔의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의 직장 생활이 감사하다.

“이제 저보다 훨씬 커버린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해요, 남편 그리고 아들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삶의 목표이니까요”

조금 더 생활이 안정되면 시험이 어려워 미뤄두었던 미용사의 꿈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신아영 씨는 이어지는 한파 경보 속에서 오늘도 스키장 리프트를 오르내리며 곧 피어날 희망의 새싹을 키우고 있다.



▲ 작년 10월 정선군의 도움으로 결혼한 지 10년 만에 고향방문을 하고 돌아왔다. 가끔 생활비를 보내는 그에게 부모님은 '하느님 같은 딸'이라 부른다.



내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  
웰니스\_로그인

11

# 추운겨울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이불 속 스트레칭

장은미 라인아카데미

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으로 활기찬 봄을 맞이해 보세요.

\* 모든 동작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척추운동



무릎을 바닥에 두고 발끝을 세워 앉는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멀리 바라본 후, 손은 깍지를 껴 정면 어깨 높이로 이동한다.



내쉬는 호흡으로 척추를 둥글게 말아내며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며 10초간 머무른다.



마시는 호흡으로 척추를 바르게 세워가며 깍지를 낀 손은 하늘을 향해 밀어내고 10초간 머무른다. 이를 번갈아 가며 5회 정도 진행한다.

### \*주의

무릎이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아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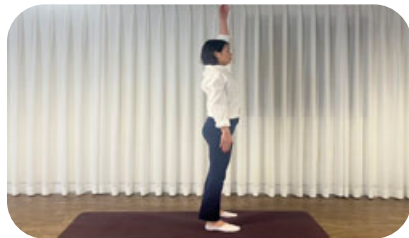
### 효과

척추 전체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일자목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내장 운동에도 효과가 좋다.

## 어깨운동



두발은 어깨너비로 열어 바르게 선다.



한쪽 팔을 하늘을 향해 뻗어낸다. 이때는 뻗어올린 팔이 귀 옆과 가까이 가도록 한다.



내쉬는 호흡으로 하늘을 향해있던 팔을 어깨 뒤쪽으로 천천히 회전한다. 이때, 상체도 함께 회전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이 동작을 3~4회 정도 반복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 \*주의

팔을 회전할 때 어깨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팔꿈치를 굽히고 진행하기를 바라며 회전근개에 질환이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효과

견갑골 근처에 근육들을 이완시켜 어깨의 피로감을 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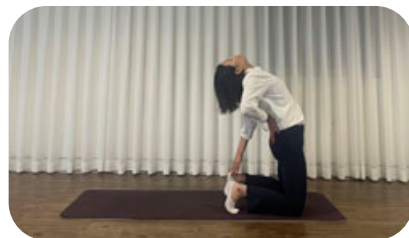
## 허리운동



무릎은 어깨너비로 바닥에 두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허리를 바르게 세워낸다. 이때, 발끝은 세워주고 어깨에 긴장감을 빼주도록 한다.



양손은 허리를 받쳐주고 어깨에 힘을 빼며 가슴을 천장에 향하게 하고 골반은 정면을 향해 밀어낸 후 목에 힘을 빼 시선은 하늘을 향하게 한다.



골반은 정면을 향해 조금 더 밀어내고 명치도 천장을 향해 밀어 한 손씩 뒤꿈치를 잡아본다.



양손 모두 뒤꿈치를 잡고 10초간 머무르며 호흡한다. 이때 호흡이 어렵다면 어깨의 긴장감이 빠지지 않은 것으로 어깨와 목에 힘을 더 빼도록 하고 어렵다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 \*주의

척추협착이 있다면 이 자세를 피해주시고, 슬개골 등 무릎 근처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담요를 무릎 밑에 깔고 진행하길 추천합니다.

### 효과

대퇴근(허벅지 앞쪽 근육)과 가슴 전면 근육들을 이완하고, 중둔근(엉덩이 근육)을 포함한 등 뒤쪽 근육들의 근력을 강화하며, 특히 허리 근력 강화에 효과가 좋다. 또한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신경계를 자극, 촉진시켜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 전신운동



양손 정면 바닥에 두고 기어가는 자세로 발끝을 세워준다.



내쉬는 호흡으로 꼬리뼈를 천장을 향해 밀어내며 무릎을 바닥에서 떼어내고 어깨와 뒤꿈치를 바닥을 향해 눌러낸다.



내쉬며 한쪽 무릎을 굽히고 반대쪽 무릎은 조금 더 펴낸다. 이를 5회씩 천천히 반복하며 종아리 근육을 조금 더 이완해 본다.



다시 양쪽 뒤꿈치 모두 바닥을 향해 눌러내어 10초간 유지한다.

### \*주의

손목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식후에는 위액이 역류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효과

하체의 부종을 제거하며 전신 혈액순환을 돕고 코어근육을 강화시켜준다. 또한 자세 교정 및 척추를 정렬, 어깨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어 신체에 피로회복과 활력을 찾아주는 효과가 있다.

## 임대 노후농업기계 불용물품 매각 안내

### 불용 임대농업기계 현황

보관장소	기종	수량	비고
계	스피드 스프레이어 등 20종	84대	
임대사업소 본소	스피드 스프레이어 등 23종	34대	
// 신동분소	자주식 퇴비살포기 등 6종	8대	
// 임계분소	관리기 등 17종	26대	
조사료생산 기계	목초결속기 등 8종	16대	

### 매각 추진계획

- 정선군 지역제한 온비드(OnBid) 일반입찰 : 2025. 3월 중
-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물품은 지역제한 없이 일괄매각

### 문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계팀

- 본 소 : 560-2597, 560-2855
- 신동분소 : 560-2850
- 임계분소 : 560-2696

※ 주의사항 : 대부분의 불용 농업기계는 노후 및 수리비 과다 등으로 사용이 어려우니 투찰 전에 반드시 해당 임대사업소를 방문 물품상태를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스페이스 도슨트와 떠나는 건축여행

스페이스 도슨트가 설명해 주는 우리 주변의 건축 공간 이야기



### 강사 | 방승환 작가

現) LG CNS 스마트시티 전략팀  
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前)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저서) 스페이스 도슨트(현암사)  
저서) 닳은 도시 다른 공간(다운재)  
기고) '스페이스 도슨트 방승환의 건축진담'  
세계일보 '23.01.03~연재 중  
기타) tvN <별거벗은 세계사> 패널 출연

### 주제

03.13(목) 이야기로 지은 미술관  
03.20(목) 인물과 예술을 만나는 건축  
03.27(목) 지역 속 건축

일시 | 2025. 03. 13 ~27 (매주 목요일) 19:00~ 21:00

대상 | 도서관 이용자 30명

장소 | 군립도서관 2층 북카페

신청 | 2. 5(수) 09:00 ~ 마감시까지

군립도서관 누리집 신청



따뜻한 동행 · 자유의 시작  
정선군립도서관

## 3월 농업정보

작목/특성	상순	중순	하순
<b>식량작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이앙 못자리 자재준비(10a당) -모판흙 : 산파 상자당 5L, 포트 상자당 3L -상 자 : 산파 32개, 포트 43개 -법 씨 : 5kg / 3kg ※토양 및 축분액비 검정 의뢰(농업기술센터)</li> <li>■ 퇴비주기 : 완숙퇴비 사용</li> <li>■ 콩 종자 신청 : 읍, 면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못자리 자재 준비</li> <li>■ 규산질 비료 주기 : 200~250kg/10a</li> <li>■ 객토한 논 종합개량 : 퇴비주기</li> <li>■ 봄 논갈이 : 15cm이상(모래논 : 10cm정도)</li> <li>■ 녹비작물 배수로 정비</li> <li>■ 퇴비주기 : 완숙퇴비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토한 논 종합개량</li> <li>■ 규산질비료 및 퇴비주기, 봄논 깊이갈이</li> <li>■ 발작물 종자, 전용복비, 비닐 등 자재준비</li> <li>■ 상토 준비 및 토양검정 의뢰 -농업기술센터</li> <li>■ 봄감자 파종준비 및 씨감자 다듬기</li> </ul>
<b>원예 및 특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추 가식상 관리 : 온도, 물, 환기 등</li> <li>■ 마늘밭관리(정선평지) : 병해충방제, 월동 후 관리</li> <li>■ 과수 월동병해충 방제 : 석회 유황합제</li> <li>■ 약용작물 종자 및 파종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추 육묘상 관리 : 온도, 물, 환기 등</li> <li>■ 과수 토양개량 후 식재 : 석회 200kg, 퇴비 2톤/10a</li> <li>■ 과수 화분 매개벌 준비</li> <li>■ 마늘 고자리파리 및 뿌리응애 방제</li> <li>■ 표고 불시재배 예비살수 : 12시간이내</li> <li>■ 약용작물 종자 및 파종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추 아주심을 포장 준비 : 퇴비, 석회, 멀칭비닐 준비</li> <li>■ 마늘 웃거름 주기(10a) : 요소 17kg, 황산가리 13kg</li> <li>■ 과수 월동응애 방제 : 기계유 유제 50~80배액 살포</li> <li>■ 과원 주변 나무좀 예찰트랩 설치</li> <li>■ 향기, 당귀, 시호, 만삼 파종</li> </ul>
<b>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 콜레라 예방 주사 : 포유전 예방 접종</li> <li>■ 초지 및 논뒷그루 사료작물 웃거름주기 -이른봄 또는 매번 예취 후 요소 13kg/10a</li> <li>■ 축사 주변 청결 및 소독</li> <li>■ 돼지 콜레라, 뉴캐슬 자율방역(예방접종)</li> <li>■ 구제역 예방, 예찰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의 운동 및 피부 손질</li> <li>■ 가축의 내부 기생충 구제 : 년 2회</li> <li>■ 논 뒷그루 사료작물 물벨 도랑 정비</li> <li>■ 구제역 방역 일제 소독 실시</li> <li>■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 -소(기종제), 개(광견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의 보온시설 철거</li> <li>■ 생산능력 및 체중증가에 따른 사료 늘려주기</li> <li>■ 돼지 새끼내기 및 새끼돼지 돌보기</li> <li>■ 가축분뇨 처리시설 점검</li> </ul>

정선의 3월 농업정보

## 2025년 정선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 사업체 모집

###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체류시간 증대와 재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요강

- \* 모 집 명 : 정선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 사업체 모집
-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5.3.31.(월)까지
-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정선군에 소재를 둔 관광사업체 (관광과 관련된 숙박, 식당, 카페, 관광지, 체험 관광 등)
- \* 모집조건 : 정선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한 관광객에게 관광지 이용요금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한 업체
  - ※ 정선군은 사업체가 할인 및 혜택 제공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하지 않음.
- \* 제출서류 : 관광지 할인제공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문 의 :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33-560-2370)
  - ※ 상세내용 정선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정-군정소식-공고/고시 참조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안내

###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대 상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9. 12. 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1인당 연 14만원

**발급기간** 2025. 2. 3. ~ 11. 28.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등)

**사용기간** 카드 발급일 ~ 2025. 12. 31.

### 사 용 처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온·오프라인)

- ※ 문화누리카드 사용 전, 해당업소에 연락하여 가맹점 확인 필요
- ※ 정선군 가맹점 : 117개 업소(도서, 문구점, 관광, 숙박, 교통, 체육사 등)
  - 온라인 구매 문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카드발급 및 이용문의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정선군청 문화체육과	560-2549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560-2795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560-2606	남면 행정복지센터	560-2796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560-2717	여량면 행정복지센터	560-2665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560-2625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560-2676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560-2637	임계면 행정복지센터	560-2990

## 주민조례청구 제도 안내

### 주민조례청구 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서명 필요 주민 수(정선군) : 1,532명(2025. 1. 7. 공표)  
= 정선군 2025년도 청구권자 총수 30,627명 \* 1/20

### 청구 방법

①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정선군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 신청기관 : 정선군의회
- \* 신청서류 : 조례 제정(또는 개정·폐지) 청구서, 주민 청구 조례안
  - ※ 청구서식은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에 따름
-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인터넷 주민e직접(juminegov.go.kr) 사이트에서 청구

②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

- \*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서명방법 : 서면 또는 인터넷 주민e직접(juminegov.go.kr) 사이트

### 관련 문의

정선군의회 의사팀(☎ 033-560-2507)

## 정선군 긴급 복지지원 제도

**신청접수** 상시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794,010원)
- 재산기준 : 130,000천원
- 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730,500원(1인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한도
- 주거지원 : 189,000원(1~2인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그 밖의 지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지원절차
  - ① 위기상황발생 → ② 긴급지원요청 → ③ 현장확인 후 선지원 → ④ 사후조사 → ⑤ 지원 적정성 심사 → ⑥ 사후연계

### 문 의

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33-560-2814)

정선군  
교육발전  
특구사업

# 온(溫)마을 아라리 교육프로그램 안내

## 아라리학당

- 창의력향상 기초학력 학습
- STEAM 창의융합
- 스마트팜 제작과정
- 창의캠프(과학&인문학)
- 챌린지팩토리

## 진로아카데미

- 공무원시험 준비반
- 취업지원반

## 아라리인성교육

- 아라리 인성교육  
- 성군인성교육센터
- 성군관대학교 영어인성캠프
- 학습코칭

## 체험형 꿈키우기

- 직업체험견학
- 대학교 학과체험
- 진로캠프&진로콘서트

문의) 교육사업팀 070-4900-7954

정선군  
교육발전  
특구사업

# 온(溫)마을 아라리 교육프로그램

##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교육기간	대상(분반) *정선군민대상	비고		
아라리 학당	창의력향상 기초학력 학습 3월~12월 (3월 18일 개강)	- 초등 5학년 - 초등 6학년 - 중등 1학년 - 중등 2학년	초등 (분반) 뿌리수학 / 영어야 놀자 (합반) 창의독해 / 영어회화 중등 (분반) 정원수학 / 진짜미국중등영어 (합반) 창의논술 / 영어회화		
		STEAM 창의융합 3월~12월 (3월 18일 개강)	- 초등 5~6학년 - 중등 1~2학년	[초등/중등 분반] 토글수업&팀별 과제수행 - 인문학(인성), AI, 코딩, 3D프린터, 드론, 바이오랩스, 4차산업 등	
	스마트팜 제작과정	별도모집	- 중·고등학생 - 취업준비생	스마트팜 제작 (나만의 미니텃밭 만들기)	
창의캠프	과학	방학기간	- 초등 / 중등 외부전문기관		
	인문학	방학기간			
진로 아카데미	공무원시험 준비반	1월~12월	- 정선군 공무원 시험 준비생	[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12월 (6월 참가자 모집 예정)	
	취업지원반	공기업	3월~7월	- 정선공기업 취업 준비생	정선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강원랜드 취업 준비생 대상
		직무 역량	별도모집	- 취업준비생 - 관내기업종사자	- 토익반 - 전문 자격증반(IT분야)
아라리인성교육	3월~12월	- 초등 5~6학년 - 중등반 - 고등반	- 성군관대학교 성군인성교육센터 감사진 (박사) 현장 수업(월 1회 운영) - [초등한정] 영어 인성캠프 운영		
학습코칭	별도모집	- 중등 1~2학년	- 학습방법 및 자기주도 학습법 지도 - 기초학력향상 학습지도		
체험형꿈키우기	별도모집 (상/하반기)	- 초등 5~6학년 - 중·고등학생	-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체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역상생업체 체험 - 대학교 전공체험 및 진로콘서트(멘토)		

주관 정선군 | 주최 정선군청소년수련관 | 후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엇인가요?

개인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정부24 등 온라인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은행 등 금융 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공공기관, 병원에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할 때, 편의점이나 상점에서 성인 확인할 때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방법 1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표시한 QR 코드를 촬영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2 IC 주민등록증으로 직접 발급

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태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선군 민원과 ☎ 033-560-225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희망찬아침, 평온한저녁, 행복한정선

국민  
고향  
정선



정선군민 모두에게  
민생회복지원금 30만원  
을 지급합니다.

■ '민생회복지원 정선아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급  
지원금액 30만원

■ 신청대상  
지원기준일(2025. 2. 27.) 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포함

■ 신청(수령)기간  
2025. 3. 10.(월) ~ 4. 30.(수)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후 수령

■ 사용기한  
수령일로부터 ~ 2025. 6. 30.(월) 까지 (미사용 자동소멸)

■ 사용처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가능 가맹점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에서 확인가능)

■ 기타문의  
정선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560-2324)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

- **접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 **출생년도** 60년생부터(생일 상관없음)
- **접종백신** 23가 폐렴구균 백신
- **접종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병·의원
- **접종비** 무료
- **전화문의 후 방문(\*진료소 제외)**  
정선군보건소 예방접종실(☎ 560-4121, 2116)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접종대상** 정선군민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접종시기** 연중
- **접종기관** 보건소 및 7개 보건지소
- **접종비** 무료
- **사용백신** 대상포진 생바이러스 백신
- **전화문의 후 방문(\*진료소 제외)**  
정선군보건소 예방접종실(☎ 560-4121, 2116)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20~49세 남녀 중 가임력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무관)
- **지원내용** 필수검사항목을 반드시 포함한 검사비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여)13만원 (남)5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검사 전 사전신청 필수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 받은 경우 지원)
- **문의처** 정선군보건소 모자보건실(☎ 560-2060)

### 국내 법정감염병 중 사망률 1위 “결핵” 예방수칙 미리 알고 건강지키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 꼭 받으세요.(☎ 560-2857)

**꼭 지켜주세요!**  
**생활 속 결핵 예방수칙**

- 정기적인 결핵검진으로 건강 지키기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 가리기
-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 3월 다달이 알알이 걷기



- ※ **참여방법**
- 1 워크온 어플 설치 및 가입
  - 2 「보고싶은 정선, 걷고싶은 정선」 커뮤니티 가입 - 그룹선택(거주하는 읍면)
  - 3 ‘다달이 알알이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 4 지정 코스 80%이상 걷기(워크온 코스 참조)
  - 5 리워드 응모하기
- ※ **챌린지참여기간** - 2025. 3. 1. ~ 3. 31.  
- 쿠폰 소진 시 챌린지 조기 종료 가능
- ※ **성공물품 수령** - 수령기간 : 2025. 4. 7. ~ 4. 11.  
- 수령장소 : 가입 시 선택한 읍면 보건(지)소  
- 리워드 당첨자에 한하여 지급(개별문자 발송)

### 보건소 이야기/정선군보건소

**당번약국 운영 시간**  
일요일(09:00~13:00)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3월 휴일지킴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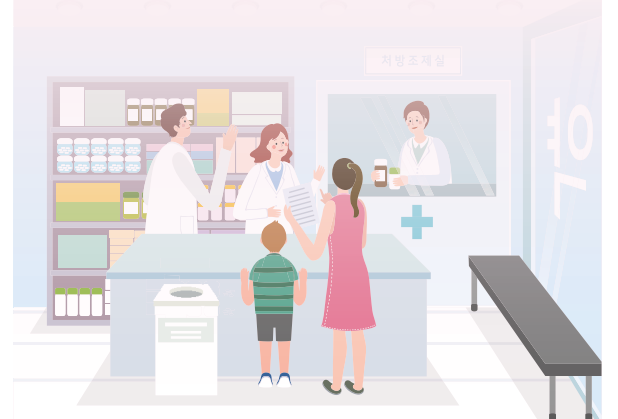
· 3월 2일	..... 사랑의약국
· 3월 9일	..... 중앙약국
· 3월 16일	..... 명진약국
· 3월 23일	..... 최약국
· 3월 30일	..... 정다운약국

※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사북, 고한, 신동, 여량,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전화확인 필요)

고한읍		
유한약국(591-2434)		
사북읍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하이원약국 (591-2287)
신동읍		
서울약국(378-6564)		
남면		
중산약국(592-2287)		
여량면		
조일약국(562-1390)		
임계면		
임계중앙약국(563-3384)		

※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군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 정선군 보건소 예방의약팀 ☎ 033)560-2195



### 생활법률 Q&A

**Q** 저는 같은 급수인 동호인들에게 배드민턴 경기의 승패로 내기를 하고자 제안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은 죄가 된다며 거부하던데 과연 그런가요?

**A**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는 재물(돈 등)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박은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되어야 하는데, 순수한 우연이 아닌 운동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승패가 결정되는 이 사례와 같이 운동경기에도 승패에 대해 내기를 하게 되면, 도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상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각자 실력에 따른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배드민턴은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는 비슷한 사람 간에 경기를 같이 할 것이므로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드민턴 경기도 우연성의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배드민턴 경기를 하면서 승패에 대해 내기를 하였다면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주의 :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히피의 영원한 자유 박지철 초대전

2025.03.07. - 03.30.  
초대일시 2025.03.07. (금) PM 14:00



주최·주관 : 그림바위에예술발전소 | 후원 : 정선군

# 고향사랑기부제

♥ 2025. 1. 1. ~ 2. 24. 기간중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정*수	고창군
유*연	광주광역시
고*민	고창군
이*염	고창군
박*형	고창군
박*후	고창군
고*성	정읍시
윤*빈	부산광역시
이*민	부산광역시
최*진	인천광역시
박*준	김포시
이*영	고양시
정*남	고창군
허*진	고창군
홍*숙	강릉시
송*경	고창군
유*호	삼척시
장*호	태백시
차*중	정읍시
박*나	고창군
김*호	고창군
윤*근	고창군
이*희	고창군
정*진	고창군
오*목	고창군
박*림	완주군
김*희	고창군
주*미	인천광역시
박*정	고창군
김*숙	고창군
이*일	고창군
송*선	고창군
문*인	고창군
김*중	고창군
이*윤	고창군
한*우	동해시
최*인	정읍시
유*현	고창군
김*완	전주시
이*주	고창군
김*연	고창군
오*호	고창군
윤*진	고창군
정*영	동해시
조*주	동해시
김*훈	강릉시
신*선	평창군
김*성	평창군
김*구	영월군
엄*수	영월군
정*기	영월군
이*길	평창군
엄*림	영월군
이*주	영월군
배*은	영월군
장*재	영월군
서*천	영월군
김*화	강릉시
이*범	강릉시
김*렬	춘천시
김*미	평창군
김*성	평창군
홍*찬	평창군
김*섭	평창군
이*철	평창군
이*현	평창군
최*영	평창군
조*호	평창군
김*혁	평창군
김*성	원주시
김*황	원주시
최*진	영월군
심*훈	평창군
강*식	평창군

박*정	영월군
이*원	평창군
이*성	영월군
이*규	평창군
정*탄	고창군
양*옥	고창군
신*옥	고창군
이*원	고창군
주*영	서울특별시
주*영	서울특별시
이*희	고창군
이*지	고창군
정*성	고창군
김*섭	고창군
정*영	고창군
김*름	정읍시
조*호	고창군
김*용	하남시
최*영	고창군
윤*혁	용인시
이*윤	원주시
변*규	울산광역시
강*성	세종특별자치시
박*선	삼척시
황*기	삼척시
김*숙	철원군
신*선	철원군
김*진	고창군
최*정	고창군
권*진	고창군
정*언	광주광역시
안*지	고창군
신*정	서울특별시
권*호	태백시
노*진	태백시
윤*원	태백시
안*연	태백시
허*재	서울특별시
김*현	철원군
안*준	철원군
서*호	태백시
김*철	철원군
심*민	철원군
석*문	철원군
임*빈	철원군
김*윤	인천광역시
이*훈	철원군
김*향	철원군
신*석	철원군
장*재	철원군
임*혜	철원군
김*지	철원군
박*성	철원군
김*우	여주시
김*희	삼척시
이*숙	삼척시
송*윤	태백시
권*영	대구광역시
김*영	화성시
강*희	고창군
김*용	서울특별시
신*영	태백시
김*석	태백시
이*현	철원군
하*우	수원시
이*미	부산광역시
위*경	서울특별시
유*준	강릉시
권*영	성남시
황*정	원주시
이*희	원주시
신*현	강릉시
전*관	인천광역시
전*리	춘천시

이*희	원주시
박*경	태백시
김*용	삼척시
이*희	원주시
박*은	춘천시
고*애	제주특별자치도
허*현	춘천시
김*진	춘천시
조*슬	남양주시
김*래	서울특별시
김*경	원주시
심*섭	강릉시
최*수	원주시
방*단	부산광역시
이*용	서울특별시
황*희	의왕시
신*이	강릉시
이*영	원주시
변*규	원주시
박*재	원주시
백*봉	춘천시
황*현	원주시
신*근	인천광역시
김*수	서울특별시
최*경	군포시
백*범	원주시
오*상	천안시
전*희	청주시
유*미	화성시
최*안	안산시
천*현	안양시
심*지	양천구
이*연	태백시
김*정	천안시
최*란	남양주시
박*은	강릉시
탁*기	서울특별시
유*호	강릉시
조*희	제천시
김*린	화성시
김*준	천안시
양*진	화성시
양*진	화성시
김*정	울산광역시
황*균	인천광역시
황*규	서울특별시
이*순	강릉시
연*주	성남시
주*석	대전광역시
조*희	광명시
심*희	춘천시
박*수	서울특별시
최*권	남양주시
김*현	원주시
심*후	남양주시
안*호	광주광역시
노*호	문경시
황*정	강릉시
이*복	평택시
최*순	서울특별시
이*훈	포천시
남*송	천안시
이*현	부천시
전*수	부천시
최*호	강릉시
김*혁	서울특별시
이*우	서울특별시
김*성	동해시
이*영	서울특별시
이*재	원주시
신*규	군포시
고*승	순천시
김*영	춘천시
함*덕	서울특별시

## 정선장학회

♥ 2025. 1. 16. ~ 2025. 2. 15.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맨투맨 미용실 이윤미	30,000	정선감리교회	100,000
사북공공도서관 오손도손 손뜨개 수강생 일동	150,000	북평면 숙암리 벚밭길 388-2 산사야	100,000
제일환경 전제연	30,000	봉양어린이집(원장 유남식)	50,000
(주)정선레미콘	30,000	대림농약자재센터	100,000
정선군청 신성근	50,000	나전주유소 김미숙	100,000
크로커다일 정선점(대표 박선량)	30,000	사과마루 신운학	50,000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0,000	(주)기상 대표 신다정	100,000
유창OA시스템	50,000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0,000
기독교대한감리회선광교회	100,000	상유재고택	100,000
정선군청 조대현	30,000	재경출향인사 전준형(전창주)	100,000
깔끔한 우리집 사업단	30,000	강원도청 이상현	100,000
전국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정선지회	200,000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2,614,300
정선신협 이봉우	50,000	정선애 장어 먹으러 와요(박기락)	100,000
정선읍 박영훈	30,000	(주)기산전력 유은옥	100,000
정관장 정선점(장혁기)	50,000	정선읍 (합) 대성측량 이승호	50,000
정선팜(박종진)	30,000	석영공업사 이상익	50,000
임계농협 오성훈	30,000	노무법인산재정선지사 전찬오	50,000
봉양4리 천의종	30,000	(주)정선전력(대표 김우규)	100,000
정선군청 산림과 이양하	50,000	사북어린이집(원장 김정희)	30,000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윤	50,000	아라리매점 김용자	30,000
셋삼오회 고용길	30,000	신동읍 일광농자재 이창우	50,000
JS농축산기계	100,000	중47 고49 큰그루회	30,000
사북공공도서관 가을문화한마당	235,000	불새노래방(대표 김수현)	50,000
한국농업인정선군연합회	1,000,000	영춘판넬(주)	1,000,000
농업인정육식당	3,000,000	푸른나무지역아동센터 김미정	50,000

##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사람들 독자마당은 소식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생활주변의 미담, 시,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A4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게재해드리며 기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alswlgs777@korea.kr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26131) 정선군청 기획관 아라리사람들 담당자 앞



정선군 소식지 '아라리사람들' 이제 QR코드로 쉽게 만나보세요!

정선군 소식지 '아라리사람들'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5 정선 동강 국민고향 정선이 품은 동강에서 3대가 함께하는

# 할미\*데이 축제

**03.21-03.23**

AM 10:00-PM 17:00

개회식 3월 21일(금) 오전 11시

폐막식 3월 23일(일) 오후 4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QR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3대가 함께하는 할미\*데이**



가리왕산올림픽국가정원 성공유치 기원

장소  
동강생태체험전시관일원(동강할미꽃거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동강로 2908

문의  
축제추진위원회: 010-9362-8265  
정선읍행정복지센터:033-560-2601

주관  
정선읍 문화체육축제위원회  
동강할미꽃보존연구회

후원  
정선군,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KANGWON LAND, 정암사